

“금강경을 만나면 참나를 만날 수 있다”

청운 스님 ‘육조혜능과...’ 펴내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이후, 정확하게는 아난존자가 결집에서 ‘여시어문’하고 입을 열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해석했다. 역사적으로 600명이 넘는 선지식들이 자기의 견해로 <금강경>을 풀이한 것으로 추측될 정도다.



청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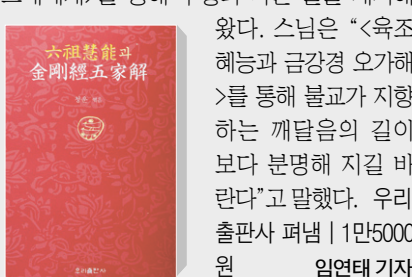
최근에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금강경>을 풀이한 서적이 자주 출간되고 있다. 인문학이나 과학 혹은 경제학자도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금강경>의 눈으로 살피거나 <금강경>의 눈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해부하기도 한다.

그런 추세 속에서 선수행자의 안목으로 <금강경>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 책이 나왔다. <육조혜능과 금강경 오가해>는 50년간 <금강경>을 화두로 삼아온 청운 스님(진종통일불교중앙협의회 교육홍보위원장)이 <금강경>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들을 간추린 것이다. 육조 혜능 스님의 해설을 기본으로 했지만 규봉과 아부 등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음으로 경의 대목마다 자세한 해설을 베풀었다. 또 청운 스님이 궁구하여 얻은 ‘결과’를 오가(五家)의 해설 말미에 덧붙여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름길이 되게 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쓸 일이 없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뗏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법을 뗏목에 비유했고 육조도 부대사도 한결같이 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했다. 청운 스님은 이 대목을 두고 “인식 너머에 있는 참나(眞我)인 진여불성과 하나 되는 것”이라며 연기법과 사상(四相,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대둔산 태고사의 도천 스님 문하에서 수행에 매진해온 청운 스님은 이미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를 통해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해 왔다. 스님은 “<육조혜능과 금강경 오가해>를 통해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길이 보다 분명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임연태 기자

그가 든 햇불은 나라를 구했지만 그의 생애는?

조영록 교수 ‘사명당 평전’ ... 방대한 자료로 연구 범위 넓혀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영웅의 이야기는 변질되기 십상이다. 확대되거나 신비화되기도 하고 묻히거나 얼토당토않게 왜곡되기도 한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 전쟁이 낳은 영웅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의 경우도 그렇다. 우선, 임진왜란과 결부된 사명당의 선입견은 도술을 부려 왜장을 물리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쇠로 달군 방에 서리를 내리게 했다는 등의 도인(?)으로 회자돼 왔다. <임진록>이라는 민간 설화집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임진록>의 잘못도 아니다.

총무공 이순신이나 권율, 서애 유성룡 등 제도권 속의 영웅들도 전란이 끝난 직후에는 위정자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지 못한 데에 사명당과 영류 대사 등 승병장들에 대한 권력자들의 평가는 소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유교의 시대였고 위정자들은 사대 사상에 젖어 있었을 뿐, 구국의 햇불을 밝혔던 초야의 수행자를 향해 경배의 몸짓을 보낼 리가 없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오래 지속됐다. 사명당에 대한 연구는 사학계와 불교학계 공히 폭넓게 전개되지 못했다. 간헐적인 연구와 자료발굴로는 해당 연구를 활발하게 이끌지 못했던 것이다. 10년 전에 발췌한 사명당기념사업회는 바로 500여 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방치했던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혁혁한 업적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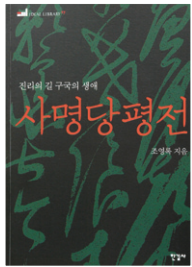
사명당기념사업회 발족 때부터 학술분야에서 활동해온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사명당과 같은 밀양 출신이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었겠지만 조 교수는 사명당 연구에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의 연구를 종합해 <사명당 평전>을 묶었다. ‘평전’이라는 틀이 암시하듯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을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망라했다. 사명당 관련 서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자료와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것이다.

조 교수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명당을 조명하고 있다. 우선, 임진왜란이라는 난세를 배경으로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로 본다. 호국불교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자생한 독특한 전통이다. 삼국시대부터 씩씩 튀은 이 한 국적 불교사상이 사명당에서 그 정점을 이룬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외교적 측면에서 보는 사명당의 품도도 매우 우뚝하다.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후에 왕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하는 대목은 ‘외교의 달인’이 아니고는 해내기 힘든 성과였다. 그래서 사명당의 일대기 가운데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신비화된 이야기가 많다.

그렇다면 수행자로서의 사명당은 서산 대사 청허의 직계제자로 자리하고 있는 사명당의 위치는 선종 사에서도 매우 높다. 17세에 부모의 상례를 다 마치고 밀양에서 김천 직지사까지 걸어가 출가한 사명당은 이듬해에 승과에 응시해 선과(禪科)를 당당하게 통과했다. 유학자들과 폭넓은 교분을 유지하면서 선리를 추구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봉은사 주지자리를 버리고 묘향산 보현사에서 서산 대사의 질정을 받으며 수행에 매진했다. 사명당의 선풍은 이미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며 활달하게 했던 것이다. 난세를 맞아 구세의 햇불을 들었어도 세상을 밝히는 빛을 추구했던 것이지 어둠을 찾아다니는 적이 없었다.

사명당은 시문(詩文)에도 뛰어났고 초서로 대표되



묘향산 보현사 사명 대선사 진영

는 서체도 당대 최고의 경지로 찬탄 받았다. 조교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전거를 제시하며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내면과 외연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명당 평전>은 67세를 살고 간 사명당의 생애를 18장으로 나눠 상술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한 새로운 해석의 범위를 최대한 세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길사 펴냄 | 2만7000원
임연태 기자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불교복지, 행복과 대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음
학지사 펴냄
1만3000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외)이 불교의 사회적 위치와 그 정체성을 확보하고 불교복지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복지, 행복과 대화하다>(학지사)를 출간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 불교생협연합회 이정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이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함께 곁들여 불교적 행복, 불교적 복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중생 구제 원력과 자비사상 등의 교리에 기반 한 불교계 사회복지활동의 정당성을 불교적 행복론이라는 주제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불교는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다가가기 어렵고,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종교로 여겨진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런 불교의 이미지를 삶과 복지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상적 삶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 책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늘 만나고 고뇌하는 욕망, 소외, 불평등, 스트레스, 진정한 행복 등의 문제에 대해 불교가 어떠한 해법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준다.
이너는 기자

계율을 알아야 불자다



나를 일깨우는 계율 이야기
이자랑 지음
불교시대사
1만2000원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수계(受戒) 여부다. 재가의 삼귀의 계, 신도5계, 보살계로부터 승가의 각종 계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이다.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계는 받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계는 무법천지의 법률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율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다. 금기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율이 지키기 어려운 금기사항들이라

면 불교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지켜 오지 못했을 것이다. 계와 율은 개인의 수행과 정진, 출가와 재가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빼다 역할을 해 왔다. 계율에 대한 편견을 빨리 버릴수록 불교는 건강해진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란 생각보다 지키므로 더 편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는 계율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근간을 제시하며 각종 계율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젊은 계율연구자의 섬세한 안내가 계율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깨달음을 여는 열쇠



선화 상인의 능엄신주 법문
정원규 편역
불광출판사 펴냄
1만2000원

현대 중국의 고승 선화 상인(1918~1996)은 모친의 묘 앞에 읍을 치고 3년 시묘살이를 한 스님이다. 그는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저녁에도 눕지 않았으며 <화엄경>에 철하고 정토참법으로 참회를 했다.

1949년 홍콩으로 건너가 전법의 길을 걸다가 1962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74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유커이에 만불성성(萬佛聖城)을 건립한 후 27개의 도량을 건립했다. 수행자로서의 모범과 함께 인류의 행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 온 그는 계율의 수지, 참선과 염불예참, 경전 연구, 대중화합 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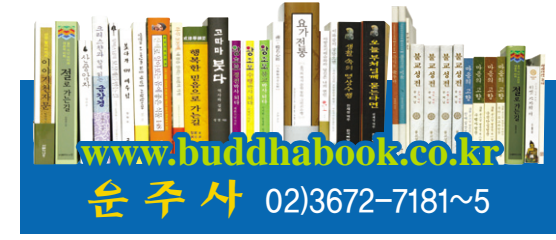
그가 능엄신주를 설할 때는 언제나 “현재 내 세의 복락을 누리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그의 엄중한 가르침이 녹아 흐르는 이 책에서는 능엄신주의 여섯 가지 주요 작용(성취법 증의법 식재법 구소법 항복법 길상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대십주도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능엄신주 기도를 하며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가사의한 힘을 느끼게 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일곱 번의 직법안사	무비	불광출판사
4	법륜스님의 죽은즉심	법륜	정토
5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6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미음의 숲
8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9	깊고 깊은 연못 가르침	해국	시유수
10	지리산 스님들의 뜻이라는 수행이야기	천천, 현현	불광출판사

*출처: 불출판 운주사 제2권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www.sunju.co.kr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이번 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부산, 광주 법회는 전강 대법회 및 사막화 방지 사단법인 창립기념 행사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9월 전국 법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황리에 마친 전강 대법회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황금인 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 42,000원

YADANBEOPSEOK 구입문의: 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